

2016년 7월 4일 새벽말씀(편집본)

월요일 새벽입니다. 7월 4일.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말씀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같이 이 시대가 그러하다.

하나님의 시대를 비유 들어서 말할진대, 포도원에 사람들을 일하려고 불러들이는 포도원 주인 같은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시대의 나의 입장이다. 모두 불러들여 지금 일을 시키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오게 하고 있다. 일하라. 할 일이 너무 많다. 놀지 마라.

오늘 아침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노는 것도 끝이 없고, 일도 끝이 없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놀아도 보고 일도 해 보았는데, 노는 것도 계속 노니까 지겹고, 재미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 보니까 너무 너무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도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표도 안 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조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가령 전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제대로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는데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1년 2년 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0여 년 동안 길러야 됩니다. 20살 먹었다고 다 기르고 영화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30살, 40살, 50살, 60살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도 끝이 없더라.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더라.”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끝이 없는 일, 일을 해도 표도 안 나는 일이지만 해야 됩니다. 노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노는 것과는 비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왔습니다.

“일하는 것이 끝이 없어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가 안 나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을 해 놓고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태산같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 일의 낙도 있고. 모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일하느라고 고달프고, 그리고 힘들고, 정말로 일 안 하는 데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결국 일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일 안 하고 노는 데가 천국이라고 하지만, 계속 놀아보세요. 나중에 가서는 존재를 못 합니다. 존재하기 힘듭니다. 일을 해야 존재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너무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자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일 없는 자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꾸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100가지, 200가지 자꾸 일을 해야 됩니다. 보면 일거리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1시간을 일해도 좋으니 와서 포도원의 일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값을 주리라.” 1시간 일해 주면 주인은 10시간만큼 얻어지니까 충분히 두 배를 줘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 포도나무가 물이 없어 시들고, 퇴비가 없어서 메마르는 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 일하는 데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대의 일에 모두 전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사장들이,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일꾼들을 찾고 있어도 모릅니다. 돌아다니면서 “나, 일꾼이니 나 좀 써 달라.” 해 보세요. 그러면 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안 생기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애타게 찾는데도 서로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고 싶은데 찾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일거리 달라고 기도를 해요.

섭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파고 들어가면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뭘 나에게 일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 먼 나라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알지요.

그릇에 맞게, 여러분 체질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일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에 해당되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소질도 주고, 생각도 주며, 그리고 여러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도자들이 노력하고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고, 일하는 사람들 돌아보고, 감독이 되어 주고. 일을 하다보면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옆에서 지켜 봐 줘야 됩니다.

안 하면 안 커집니다. 교세 확장이 되고, 선교가 시대 장마철에 강물이 불어나듯 하려면 부질없이 누구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도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일을 맡기지 말고 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가정의, 집안을 보면 특별히 아버지만 일꾼이 아니고, 어머니만 일꾼이 아닙니다. 다 어린

어린 대로, 크면 큰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일거리가 있습니다.

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해 봤자, 누가 합니까? 평생 자기가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젊어서 안 하면 나이 먹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뛰고 달리면서 일을 하자.”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끼리도 일을 해야 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끼리 새로운 맛이 안 나면, 생동적인 것을 가지려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뛰고 그러면 또 생동성이 있습니다.

그 주관권의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못 합니다. 그 주관권의 그 생각.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젊은 측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 30대, 40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또 뼈가 있고, 튼튼한 경험들을 얻게 되므로 더 자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섭리사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라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할 일이 많아요. 각 나라는 내가 말한 대로 부지런히 이제는 부활기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일꾼을 만들고 제자를 삼아서 자꾸 사명을 주어서 일을 시키도록, 사명을 주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섭리역사가 하나님의 강림을 감당할 수 있고, 주 그리스도의 강림을 감당하며, 선생님을 모시고 시대의 역사를 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선생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다 시대의 복음으로 세계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이만큼 커졌겠습니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역자들이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는가 하니, 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해 놓은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했으면 해 놓은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 많이 한 표입니다.

여러 가지 일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에게 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일 좀 잘 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나와 같이, 월명동 내 고향에서, 혹은 내 지역에서 목회를 모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와 다른 것은 나는 ‘이 시’대를 깨닫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기성으로 흘러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성의 사고를 못 벗어나고, 기성시대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깨닫고 벗어나서 일을 해야 새로운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역사에서 새로운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날잖아요. 구시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역사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들을 이끌어 와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여기 포도원에 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니, 지금 일거리 찾느냐? 여기 사람이 열 명, 스무 명, 백 명 필요하다.” 하면 너무 좋아서 뛰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에, 한 바탕 해 먹은 거기 가서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서 새로운 역사를 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아이 템, 새로운 것을 해야 여러분이 일하는데 지겹지 않고, 새로운 맛을 느끼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해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일을 계속 해 봤자 힘이 안 생깁니다. 자꾸 새로운 방향!

선생님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새로운 아이 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조직!

이러면서 우리 모두 각자가 부지런히 하나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리로만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리로만 하려고 하고, 여기 사람은 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방법을 살려가면서 서로 협조하고, 상호 하나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 일을 해서는 조금 밖에 일을 못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모두 합동해서 밀어붙이면서 해야 웅장하고 이상적으로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 돼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다. 절대 놀지 마라. 왜 노느냐?”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데...”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섬리 역사에 가서 일하라. 찾아봐라. 너무 할 일이 많다.” 너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 섬리역사에.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찾아서 하면 더 크지. 웬만하면 허락하니까 와서 일을 하도록 하라. 너무 일이 많다. 포도원에 일단 들어와 봐라.”

무슨 일을 그리 해야 될 것이 많은가. 보면 압니다.

보면 “저 나무는 거름해야 되겠다. 저 나무는 풀을 매어 줘야 되겠다. 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저 나무는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다. 일부 따 주어야 되겠다. 저 나무는 꽃이

너무 많이 피었다. 일부 따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열매를 누가 자꾸 따간다. 익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늘 보면서 포도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실습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본인들이 모두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할 것이 많은가?’

너무 일들이 많습니다. 합동해서 일을 할 것도 있지만, 개성적으로 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아요. 3천 5백가지도 넘는대요. 우리 새로운 역사의 일거리가. 섭리역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은 일이 많으니까 50가지씩 말고 있는 것입니다. 40가지, 50가지씩 말아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자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요즘 선생님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못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제재를 해? 누가 막아?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일하게 해 주세요. 섭리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세요. 어제 말씀하기를 3500 가지나 된다는데 그 중의 한 가지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 개성대로 만 명이면, 만 가지의 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보세요. 다 일거리가 있습니다. 이 손, 저 손 다 일거리가 있습니다. 이 손이 할 일, 우측 발이 할 일, 좌측 발이 할 일, 폐가 할 일, 위가 할 일, 눈이 할 일, 일거리가 다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다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눈이 눈의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라고. 귀는 귀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찾게 해 달라고. 분명히 지체 비유로 볼 때도 꼭 일거리가 있습니다. 꼭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지요. 자기의 일인데. 이 섭리사는 모든 지체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단상에서 새벽마다 외치듯이, 이게 일이 아닙니까? 주일도 외치고, 일이 아닙니까? 또 모든 생명을 개인까지 관리를 하는 것, 그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서 화동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인데, 꼭 목회하는 일만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도울 일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어떤 것을 도와줄까요? 너무 놀고 있기에 민망스럽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 놓고.

어제도 내가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각 나라 모든 회의를 했는데, 11시 넘을 때까지 했습니다. 거의 12시까지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식사 할 겨를도 없더라.” 왜 그랬겠습니까? 밥맛이 없어서 겨를이 없더라? 살이 찢까봐 밥을 안 먹은 것입니까? 겨를이 없어요.

자, 나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수고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으고 헤치는 데에 말없이 청춘을 들어가면서 일한 사람들, 앞으로 너희들에게 역시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줄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받는 자 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당히 줄 것입니다. 나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받을 것입니다. 상당히. 매일 하고, 매일 받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일을 하는데. 많은 생명들을 옮은 데로 돌아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어떤 교회는 교인 전체가 1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가 통과한 만큼도 못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많이 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혼자 전도해서 갖다 만든 숫자를 교인 전체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놀았다는 것입니다. 일할 줄을 몰랐든지.

어떤 사람은 아주 뻗속 깊이, 마음속 깊이 말씀을 가르쳐서 완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번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시원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해도 안 됩니다. 2년, 3년을 해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내 손도 아니고 남의 손에 심부름을 시켰더니 한 번에 되었습니다. 한 번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살면서, 옆에 있으면서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밥 사먹어 가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어 가면서 했는데도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일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일을 합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 나가요.

“능력 있는 일, 파워 있는 일, 은혜 있는 일을 열심히 모두 하라.”

하늘을 대면하면서 힘 있게, 힘차게 하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을 합니다. 해 놓고, 나도 내

가 일한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일을 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섭리사가 이만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이끌어 내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못 해 줍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일을 다 해 놓고 불만하지 마세요.

“왜 나는 조금 줬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서 조금 주었다. 어쩔래? 일을 조금해서 조금 주었다. 어쩔 거여?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줬다. 어쩔 거냐?” 그랬습니다.

“너희들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준 것이다. 일 조금해서 조금 준 것이다. 그래도 내가 약속대로 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일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을 해 주고서 “건강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고서 “나,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을 해 주고서 “하나님, 이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일을 해 주고 “나, 이것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까. 필요 없이,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졸라대고 밤새도록 원해야 주지 그냥 주나.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이시라고.

열심히 해서, 우리 악착같이 밀어붙이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이제는 10만, 100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맨날 그 인원 갖고 살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세계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번져 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잠을 잤다고 보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활발하게. 세계 진출을 향해서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리 저리 인도를 해 줄 테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세계로 뛰쳐나가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것을 줬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 섭리역사의 일들을 계속 각 위치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놀지 말고, 나중에 가서는 “야... 왜 내가 그때 놀았지?” 하게 됩니다. 논 것이 표가 납니다. 이제는.

“너무 놀았구나. 아쉽다. 정말 원통하다. 안타깝다.” 하게 됩니다.

놀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놀지 말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청춘에 꼭 맞는 일들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청춘이 피고, 아름답고, 멋있을 때 꼭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지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는 아무 돈도 뺄도 없고 소질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일을 배우면서 일꾼이 될 수 있다. 일을 하다보면 돈도 생기고, 일을 하다보면 경제가 퍼진다. 앉아서 말만하지 말고 일을 하라. 일을 하다보면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확실하게 눈에 뜨이고 깨달아진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만군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의 축복을 주시고, 놀지 말고 포도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약역사에 와서 일을 하게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 해 주시옵소서.

어려도 어린 대로 일할 것이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일할 것이 있습니다. 놀지 않게 해 주시고.

“왜 노느냐?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왜 노느냐? 일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쓸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우리 섬리사의 일거리가 많으니.”

“무슨 일을 합니까?”

“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느냐? 있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리라. 와서 일들을 찾으라. 네가 마음에 맞는 일을 하라. 옆의 사람이 말기면 마음에 안 맞는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체질에 안 맞는 말을 하여서 맞지 않는 일을 시킬 수 있으니, 네가 찾아봐라. 네 체질에 맞도록, 네 분량에 맞도록, 네 힘에 맞도록. 네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대로 찾아봐라. 내가 허락하니 일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리에 와서 1년 동안 놀고, 2년 3년 4년 5년 계속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유지가 안 돼서 신앙이 파괴되기도 하고,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이 파괴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를 귀히 보고 중히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일하는 자와

그와 같이 강림하여 일하는 것인데, 시대의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 하는 자에게 주께서 손을 잡고 동행하시며, 일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 주십니다. 모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일하라.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중심인물과 같이 열심히 일들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 이상적이니.”

일을 해 놓으니까 공원이 되고, 일을 해 놓으니까 아름다운 성지 땅이 되고, 일을 해 놓으니까 집이 지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고, 일을 해 놓으니까 우리 섬리사에 역사의 나라가 섰습니다. 모두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모든 농락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가 일을 함으로 모두가 다 깨어지게 해주시고, 다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내가 빌고 간구하고 간구한 것이 온 모든 자들에게 영원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늡으면 일을 못합니다.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고, 일하다가 어렵다고 나가 버리고 합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세상일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새벽예배 매일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하는데, 나는 새벽예배를 안 드리면 진짜 미칩니다. 새벽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체질을 들여야 됩니다. 일을 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충명을 주고 힘을 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고, 그 동안 일을 한 사람들은 너무 수고하고 열심히 했기에 하나님께서 상당한 값을 지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안녕! 빠이빠이!